

「표트르 I세의 시베리아 컬렉션」 수집지에 대한 검토 - 유라시아 스키타이 문화를 중심으로 -

김 재 윤*

국문초록

표트르 I세의 시베리아 컬렉션은 18세기 총독 가가린이 시베리아에서 모은 황금 유물을 황제에게 보내면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를 기점으로 표트르 I세는 러시아 고고학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기점이 된 발굴제도의 기초가 된 포고령을 내리게 되었고, 1857년에 제국고고학위원회를 창설하게 되었다. 그 뒤에도 여러 경로로 수집되었으며, 19세기에 고고학자 스피친이 「표트르 I세의 시베리아 컬렉션」이라고 명명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고학 자료의 특성상 출처가 불분명한 점은 유물의 지역성과 연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후대의 발굴자료와 비교하면서 오비강과 이르티시 강, 알타이 서부지대와 카자흐스탄 스텝지역 등 유라시아 각 지역이 추정되었으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그간 중요한 출토지로 추정된 알타이에서는 금이 많이 사용된 유물은 적은 편으로, 카자흐스탄 스텝 지역을 좀 더 비중있게 다루었다.

하지만 새로운 유적의 발굴자료는 기존의 부족한 점을 매울 수 있는데, 시베리아 투바의 기원전 7세기 아르잔-2호에서 황금유물이 많이 출토되면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아르잔-2호에서 나온 남성의 목걸이, 여성의 귀걸이, 소형 술장식이 달린 장신구 등은 그간 알려진 표트르 I세의 시베리아 황금 컬렉션의 제품과 유사성이 많다. 컬렉션 가운데 부조기법, 상감기법, 누금기법 등 주요 제작 기술도 아르잔-2호에서 보이는 것이다. 또 동물투쟁문양 중에서 동물의 뿔 끝에 달린 새 머리 장식은 기원전 5세기 알타이 파지리크 문화 미라의 문신에서 보이며, 아르잔-2호에서도 관찰되는 요소이다.

그래서 표트르 I세의 컬렉션 중에 일부는 시베리아 투바와 알타이에서 수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컬렉션의 가운데 고리형 맹수장식은 기원전 7세기로 알려졌지만, 이를 제외한 유물은 대부분 기원전 5세기 이후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아르잔-2호와 비교 가능한 유물은 형태와 제작기법상 기원전 7세기로도 추정 가능하다.

[주제어] 표트르 I세 시베리아 컬렉션, 유라시아, 시베리아, 아르잔-2호, 기원전 7세기, 형태와 제작방법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아르잔-2호 출토품과 제작방법 비교 |
| II. 표트르 I세의 시베리아 컬렉션 수집경위와 연구현황 | V. 시베리아 컬렉션과 투바 및 알타이 |
| III. 아르잔-2호 출토품과 유물 형태비교 | VI. 맺음말 |

*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강의전담교수 / foxybear@hanmail.net

I. 머리말

표트르 I세의 시베리아 컬렉션(Сибирская коллекция Петра I, Siberian collection of Peter I)은 러시아 고고학 연구에서 학사적 의미가 크다. 이 유물은 시베리아 총독 가가린(Гагарин М.П., Gagarin M.P.)이 시베리아에서 농부로부터 모은 황금 유물을 1715~1717년 표트르 I세에게 보내게 되면서 수집된 것을 기초로 한 것이다. 가가린으로부터 황금유물을 받은 표트르 I세는 러시아 발굴제도의 시초가 된 포고령을 내리게 된다.¹⁾

1718년의 포고령과 명령에는 ‘만약 땅을 파다가 오래된 물건, 예를 들면 보석, 인골 혹은 소뼈, 새 뼈, 물고기 뼈 혹은 다른 것들도 있을 것이다. 흘렀하던지 그렇지 않은 것이든지는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면 비석, 철제 혹은 동제 혹은 오래된 흘렀한 무기 혹은 그릇 등 중요한 것은 오래되고 흔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가져오면 오랫동안 다차(러시아식 별장)가 지급될 것이다.’라고 적힌 것이다. 다른 포고령에는 ‘이런 오래된 물건을 찾은 사람은 반드시 실측해야 한다’는 문구도 확인할 수 있다. 포고령은 1721년에 완성되었으며, ‘오래되고, 발굴된, 값비싼 물건’은 페터르부르그로 옮겨지게 되었고, 표트르 I세와 예카테리나 1세가 죽은 후 1727년 쿤스트카메라(Кунсткамера, kunstkamera)²⁾에 보관되었다.³⁾

1859년 로마노프 왕조에서 제국고고학위원회(Императорская археолог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 Imperial Archaeological Commission)를 설립해서 흑해의 케르치 해협에 위치한 쿨-오바(Куль-Оба, Kul-Oba)유적을 발굴하면서 러시아에서는 공식적인 고고학 연구를 시작한다.⁴⁾ 즉 표트르 I세의 황금유물 컬렉션은 러시아가 국가적으로 고고학연구를 일찍부터 시작하는 기초를 마련하게 된 수집품이다.

그러나 고고학 자료의 특성상 출처가 불분명하면 연대와 지역성 등이 분명하지 않아서 학문적인 가치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후대 발굴품과 비교하면서 출처를 추정해 오고 있다. 오비(Обь, Ob) 강과 이르티시(Иртыш, Irtysh) 강을 따라 알타이 서부지대와 카자흐스탄 스텝 지역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되었다⁵⁾(그림 1-A).

또 하나의 가능성이 생긴 것은 시베리아 투바(Тува, Tuva)의 아르잔(Аржан, Arzhan)-2호 발굴이다. 이 유적은 도굴되지 않은 채 발굴되어서 주인공 무덤인 5호묘에서 황금유물이 대량으로 출토되었다. 그 중에는 표트르 I세의 황금유물과 같은 형식의 목걸이와 귀걸이는 그 형태가 유사한 것이 발견되어서 비교가 가능하다. 또

1) Авдусин Д.А., *Полевая археология СССР*, Москва, 1972, pp.63~63(압두신, 『소비에트의 야외고고학』, 1972, 62~63쪽)

2) 쿤스트카메라는 1714년부터 설립된 러시아 최초의 공립박물관이다.

3) 김재운, 「러시아의 발굴-연해주 철기시대 안랍스키 문화의 바라바시 3유적을 중심으로-」, 『야외고고학』 81, 2018, 131~132쪽.

4) Галанина Л.К., *Скифские древности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в собрании Эрмитажа. Келермесские курганы*, СПб: Изд-во Гос. Эрмитажа, 2006, pp.10~12(Коллекции Эрмитажа)(갈라니나, 『에르미타주 소장, 카프카스 북쪽의 켈레르메스 고분. 스키타이 문화유물』, 2006, 10~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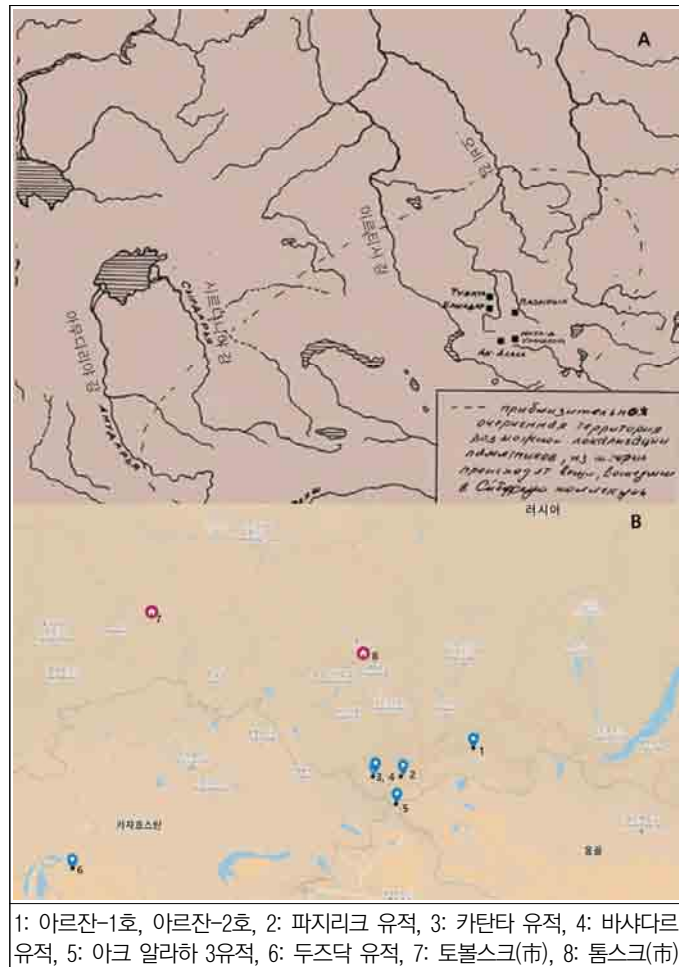
5) Королькова Е.Ф., “Сибирская коллекция Петра I – первое российское археологическое собрание”, *Основателю Петербурга: Каталог выставки [в Эрмитаже]*, СПб: «Славия», 2003, pp.2~3(코롤코바, 「표트르 I세의 시베리아 컬렉션-최초의 러시아 고고학 수집품」, 『상트 페테르부르크 파운데이션』, 슬라비아, 2003, 2~3쪽).

금제품의 제작방법 중에서 부조기법, 상감기법, 누금기법 등이 관찰되어서도 유사성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동물장식의 근육을 매우 볼륨감 있게 표현한 부조방법 등은 켈레르메스(Келермес, Kelermes) 유적과 같은 흑해지역의 특징적인 문양표현법으로 생각되었지만,⁶⁾ 아르잔-2호에서도 발견되는데, 표트르 1세의 수집품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⁷⁾ 고고학자료의 특성상 유물의 지역성과 시간성을 알기 위해서 출처는 가장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또 수집품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유물인 ‘동물투쟁문’으로 불리는 2마리 이상의 동물이 대립구도를 이루는 버클 장식이다. 알타이의 유적에서 같은 문양의 장식판이 발견된 적이 있다.⁸⁾ 그러나 알타이의 유물은 목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이 동물문양의 뿔 끝에 달린 새장식은 알타이의 파지리크(Пазырык, Pazyryk) 유적, 아크 알라하(Акалах, Ak alakha) 1유적에서 보이는 문양요소이고, 이 보다 이른 아르잔-2호에서 금으로 제작된 것이 출토되었다. 동물투쟁문양도 알타이 유적 및 아르잔-2호의 출토품과 비교하고자 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표트르 1세의 시베리아 컬렉션 가운데, 비교가능한 유물을 아르잔-2호 출토품 및 알타이 유적과 비교하고자 한다.



〈그림 1〉 표트르 1세의 황금유물 추정 입수지
(A : 코롤코바 2003, B : 필자 편집)

6) Переводчикова Е.В., *Язык звериных образов. Очерки искусства евразийских степей скифской эпохи*, 1994, pp.58~62(페레보드치코바, 『언어로서의 동물문양장식』, 1994, 58~62쪽).

7) 김재윤, 「스키타이 차르 무덤, 아르잔-2호」, 『고고광장』, 28, 2021, 143~144쪽.

8) Артамонов М.И., *Сокровища саков*, М.: 1973, pp.148~149(아르타모노프, 『사카족의 보물』, 1973, 148~149쪽).

이를 통해서 컬렉션 가운데 일부라도 불분명한 출토장소와 연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II. 표트르 I세의 시베리아 컬렉션의 수집경위와 연구현황

1. 수집경위

표트르 I세의 시베리아 컬렉션은 시베리아 총독이었던 가가린이 황제에게 보낸 유물 및 표트르 I세 이후 예카테리나 1세와 엘리자베타 여왕기에 있었던 제2차 캄차트카(Камчатка, Kamchatka) 대탐험 프로젝트 중에 밀러(Миллер Г.Ф., Miller G.F.)가 발굴한 유물, 네델란드 과학자로 알려진 Nikolas Witsen이 모은 유물(그림 2)로 구성되었다. 모두 시베리아에서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1909년 시르다리아(Сырдария, Syrdarya) 강 하류의 두즈닥(Дуздук, Duzdak) 부근(그림 5-6, 7)에서 수집된 유물도 포함되었다.⁹⁾

1715년에 시베리아 총독으로 부임했던 가가린은 농부들이 땅을 파다가 모은 황금유물 10점, 1716년에는 122점, 1717년에는 60점의 금제품과 2점의 은제품을 표트르 I세에게 보냈다. 가가린이 두 번째 보낸 유물은 차르가 없는 동안에 모스크프(П. И. Мошков, P. I. Moshkov)가 받아서 이를 정리하고 유물에 명칭을 부쳤고, 50점을 자비투히나(Завитухина М.П., Zavitukhina M.P.)가 정리¹⁰⁾해서 목록이 전해진다.

이 유물은 러시아 최초의 국립박물관인 쿤스트카메라에 보관되었다가, 겨울궁전이었던 에르미타주(Эрмитаж, Hermitage)를 박물관으로 꾸미고 유물을 옮긴다. 쿤스트카메라 박물관에 있는 동안 시베리아와 흑해부근에서 발견된 유물이 더 추가되었고, 19세기 말 스피친(Спицын А.А., Spitsyn A.A.)이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보관된 황금유물을 정리하면서, 시베리아 총독 가가린이 표트르 I세에게 보낸 편지를 발견했고 유물을 보낸 장소가 톨볼스크(Тобольск, Tobolsk)와 톰스크(Томск, Tomsk) 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기념해서 ‘표트르 I세의 시베리아 황금 컬렉션’이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가가린도 여러 지역의 유물을 모았기 때문에 정확한 출토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후대에 유적을 발굴에서 얻게 된 결과로 이르티시 강과 오비 강의 합류점, 알타이, 카자흐스탄 스텝 지역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단정짓기는 어려운데 스키타이 유물 특성상 비슷한 유물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허다하다¹¹⁾. 연대로는 기원전 7세기 경으로 생각되는 원형맹수장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원전 5세기 경이며, 일부는 스키타이 문화 이후의 기원전 3세기 이후 사르마트 문화의 것도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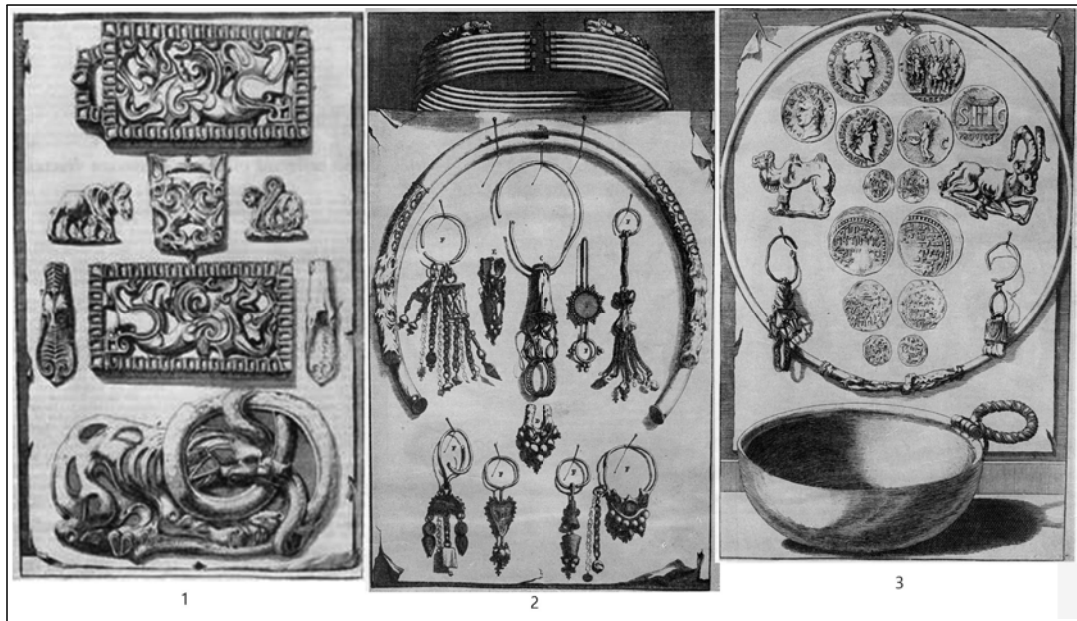
9) Завитухина М.П., “Золотые браслеты из местности Дуздук(Туздук) в Средней Азии и Сибирская коллекция Петра I.”, *Евразия сквозь века*. СПб: 2001. pp.200~203(자비투히나, 『표트르 I세의 시베리아 컬렉션과 중앙아시아 두즈락에서 발견된 황금팔찌』, 『시대를 초월한 유라시아』, 200~203쪽).

10) Завитухина М.П., “Собрание М.П. Гагарина 1716 г. в Сибирской коллекции Петра I.”, *АСГЭ*. Вып. 18. Л., 1977, pp.42~44(자비투히나, 『표트르 I세의 수집품 가운데 1716년 가가리노의 수집품』, 『에르미타주 국가박물관 고고학논문집』 18, 1977, 42~44쪽)

11) Королькова Е.Ф., *op. cit.*, 2003. pp.2~3(코롤코바, 위의 논문, 2003, 2~3쪽).

네델란드의 Witsen은 1664년 러시아의 네델란드 대사관에서 근무했다. 지리, 언어, 민족지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이었는데, 러시아를 떠난 이후에도 러시아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보를 수집했다. 그 가운데는 도굴꾼이 획득한 금제품, 청동, 철제품 등이 포함되어었는데, 이에 관한 내용은 ‘Северная и Восточная Тартария(타타르인의 북쪽과 동쪽)(1785년)’에 수록되어 있다. 자신이 수집한 황금유물의 그림(그림 2)과 설명을 남겨 놓았다. 이 유물은 그가 죽은 후에 경매에서 팔렸다는 사실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었다.¹²⁾

그런데 그의 책에서 본 비슷한 유물이 에르미타주 박물관의 표트르 1세의 수집품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스피친이 발견했다. 버클 장식으로 늑대와 맹수가 싸우는 장면이 묘사된 유물은 실제 표트르 1세의 수집품이었다. 이 유물은 쌍으로 제작되어서 한 점은 가가린을 통해서 표트르 1세의 수집품으로 들어가고, 다른 유물은 위트젠의 수집품이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같은 무덤의 유물을 각각 입수했던 것이었다. 비트젠 사후에 경매에서 판매된 유물은 로마노프 왕조에서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다.¹³⁾



〈그림 2〉 비트젠이 시베리아에서 수집한 유물(루덴코 1962, 필자편집)

시베리아 황금유물 컬렉션 가운데는 가장 학문적인 경로로 수집된 것은 1734~1735년 동안 있었던 제2의 캅차트카 대탐험 프로젝트¹⁴⁾ 가운데서 크라스노야르스크(Красноярск, Krasnoyarsk)지역에서 밀러가 직접

12) Руденко С.П., *Сибирская коллекция Петра I*. САИ ДЗ-9. М.-Л.: 1962, pp.7~9(루덴코, 『표트르 1세의 시베리아 컬렉션』, 1962, 7~9쪽).

13) Королькова Е.Ф., *op. cit.*, 2003. pp.2~3(코롤코바, 위의 논문, 2003, 2~3쪽).

14) 제2 캅차트카 대탐험은 예카테리나 1세와 엘리자베타 여왕기에 있었다. 베링이 총 책임자였는데, 우랄에서 태평양 연안, 추코트카 반도까지 북극해를 포함해서 당시의 시베리아를 모두 조사하는 것이 목표였다. 현재는 캅차트카, 추코트카 등 극동

발굴한 유물이다.

밀러는 1735년 겨울에 크라스노야르스크를 방문해서 고대 무덤에서 구리로 된 유물을 대량으로 발견했다는 보고서를 남겼고, 그 지역에 구리광석이 산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그 지역은 사얀(Саян, Sayan)(미누신스크 분지 부근)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¹⁵⁾

밀러가 작성한 『시베리아의 역사』는 1937년에 간행되어 시베리아 탐험 내용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이 책에서 말탄 궁수(그림 3-4, 5)와 목을 돌리고 있는 사슴(그림 3-3, 6), 귀걸이(그림), 산염소(그림 3-1)와 사슴 장식(그림 3-2) 등이 소개되었는데, 오비강 유역과 이르티시 강 사이 주변의 무덤에서 발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⁶⁾

현재의 연구로 보면 밀러가 발견한 유물들은 주로 미누신스크(Минусинск, Minusinsk) 분지에서 분포하던 스키타이문화권 가운데 타가르 문화(그림 3-7~9)의 산염소와 사슴모양 입이며, 타가르 문화의 이른 시기인 기원전 7세기 경의 유물이다.

뿐만 아니라 철제 등자와 재갈멈치도 있다. 밀러의 등자는 1940년대 연구를 근거¹⁷⁾로 예니세이(Енисей, Yenisei) 강 유역에서 기원후 9세기로 보기도 했지만,¹⁸⁾ 최근의 조사결과는 알타이에서 등자가 발견되는 시점은 기원후 5세기 중반이다.¹⁹⁾

이외에도 1909년 제국고고학위원회로 시르다리아 강 하류 두즈다к 주변에서 발견된 팔찌 2점(그림 5-6, 7)이 보내졌는데, 위원회의 회장인 스트로가노프(Строганов С.Г., Stroganov S.G.) 백작이 이를 표트르 I세의 시베리아 컬렉션으로 추가시켰다.²⁰⁾

을 시베리아에서 불리했지만 당시에는 시베리아에 포함되었다. 대탐험의 주축은 러시아과학아카데미였고 500명이 넘는 과학자, 측량사, 노동자, 군인, 신원 등이 구성되었는데, 밀러는 역사 전문가로서 참가하게 된다. 대탐험의 주요한 목적은 천연자원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해서 원주민의 경제, 역사, 지리 등을 알기 위해서 관련된 연구자들이 대거 투입되었다(에레르트 2008).

Элерт А. Х., “По следам академического отряда Великой Северной экспедиции”, *НАУКА ИЗ ПЕРВЫХ РУК*, том 18, №6, 2008(에레르트, 「위대한 북방 탐험대의 학문적 분리를 위한 발자취」, 『퍼스트 핸드』, 18호, 2008).

- 15) Завитухина М.П., “Коллекция Г.Ф. Миллера из Сибири – одно из древнейших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собраний России.”, *СГЭ. Вып. XLIII*, Л.: 1978. pp.37~40(자비투히나, 「러시아 고고학자료를 가운데 가장 오래된 밀러의 시베리아 수집품」, 『에르미타주 국가박물관의 뉴스』, XLIII, 1978, 37~40쪽).

- 16) Миллер Г.Ф., *История Сибири. Том I*, М.-Л.: 1937, 쪽수(밀러, 『시베리아 역사1권』, 19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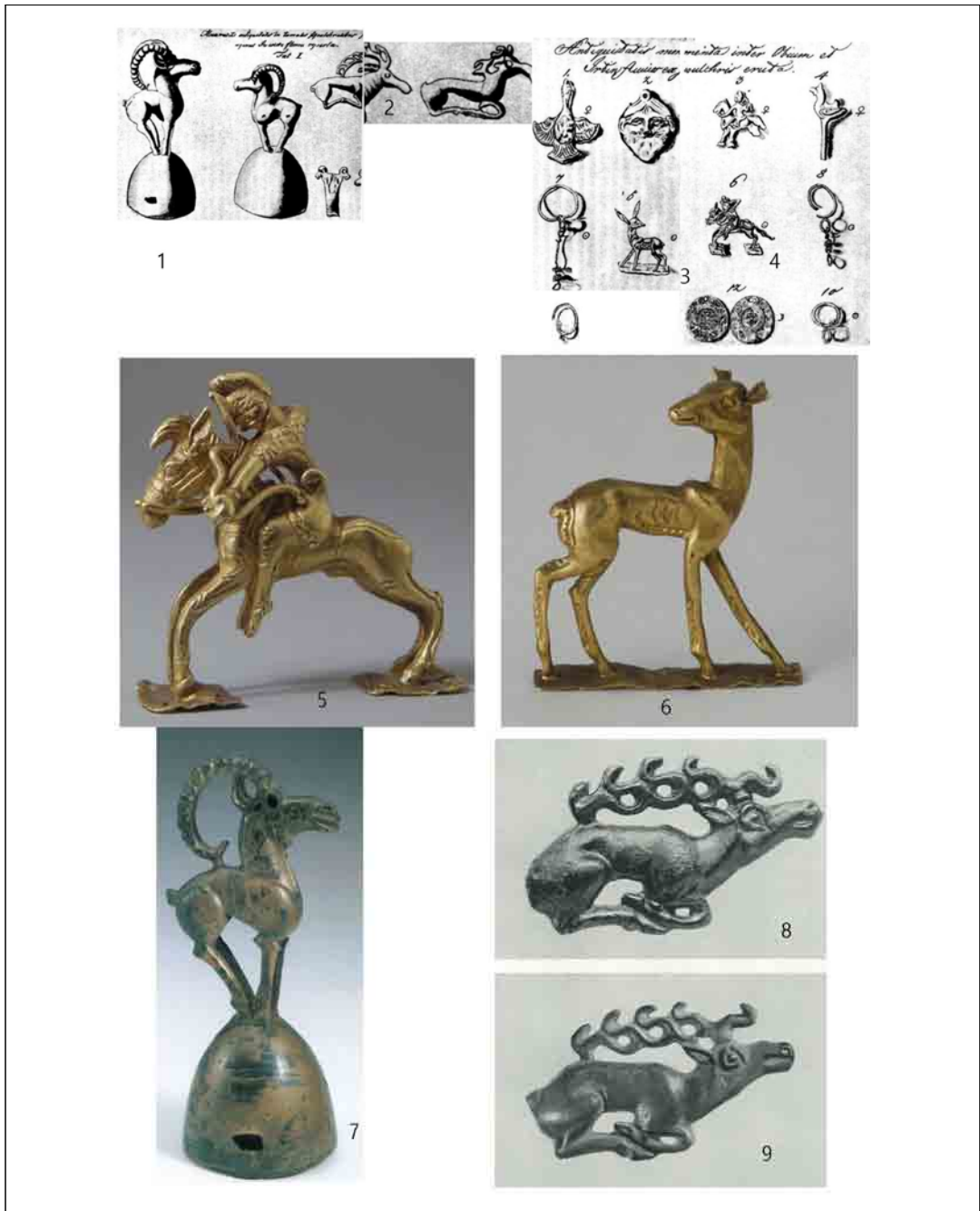
Завитухина М.П. *Ibid.*, 1978. pp.37~40(자비투히나, 앞의 논문, 1978, 37~40쪽).

- 17) Евпихова Л.А.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памятники енисейских кыргызов-хакасов*. Абакан, 1948, p.69(예프투호바, 1948, 『예니세이 키르기즈-하카스 지역의 고고학 유적』, 69쪽).

- 18) Завитухина М.П., “Собрание М.П. Гагарина 1716 г. в Сибирской коллекции Петра I.”, *АСГЭ. Вып. 18*, Л., 1977, pp.41~43(자비투히나, 「표트르 I세의 수집품 가운데 1716년 가가리노의 수집품」, 『에르미타주 국가박물관 고고학 논문집』 18, 1977, 41~43쪽).

- 19) Сергеев Н.Н. Матренин С.С., *Погребальный обряд кочевников Алтая во II в. до н.э. – XI в. н.э.*, 2016, pp.35~37(세레진, 마트레닌, 『기원전 2~기원후 11세기 알타이 유목민의 무덤』, 2016, 35~37쪽).

- 20) Завитухина М.П. *Ibid.*, 2001. pp.200~203(자비투히나, 위의 논문, 200~203쪽).



〈그림 3〉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발굴된 밀러의 유물(밀러 1937, 자비투히나 1983, 필자 재편집)

2. 출토지 추정에 대한 연구성과 및 문제제기

앞서 설명한 대로 표트르 I세의 유물은 현재의 이르티시 강 상류와 오비강 합류점 및 알타이 부근 및 카자흐스탄 스텝²¹⁾과 밀리가 직접 발굴한 크라스노야르스크 부근, 시르다리아 강 하류 지역(그림 1-A)도 포함된다.

이 중에서 시베리아 혹은 중앙아시아 유물이라고 추정되는 이유는 알타이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과 비슷한 주제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²²⁾ 황금버클 장식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동물투쟁문양은 2마리 혹은 3마리 이상의 동물이 대립구도를 이루는데 맹수와 굽동물이 서로 공격하는 장면이다. 비슷한 구도의 유물이 알타이의 카탄타 유적에서 출토되어 알타이와 관련지을 수 있다.²³⁾

뿐만 아니라 나무 아래에 여성과 남성이 휴식을 취하는 주제로 된 버클장식(그림 4-5)도 역시 파지리크 유적과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여성은 얼굴이 둥글고 눈이 작은 동양인이고 누워 있는 남성은 콧수염을 달고 있는 서양인의 얼굴로 추정된다. 특히 여성의 머리스타일이 눈에 띄는데 삭발한 채 특이한 모자를 쓰고 있는데 파지리크 유적 2호(그림 4-9)에서 비슷한 유물이 실제로 출토되었다. 뿐만 아니라 5호분에서는 동양계 여성과 유럽계 남성이 함께 등장하는 카페트도 확인되었고, 2호와 5호의 실제 피장자도 동양인과 유럽인이다. 이 유물은 알타이 부근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많다.²⁴⁾

고리형 맹수장식²⁵⁾(그림 4-1)은 시베리아 황금 유물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유물로 생각된다. 근거는 투바의 기원전 9세기 아르잔-1호(그림 4-6)에서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제작된 맹수장식이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원형 맹수 장식은 중앙아시아의 실릭티 유적 등에서 확인되어서 흑해지역만의 특징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었으나, 연대가 기원전 7세기로 비슷한 시기의 유물이기 때문에 중앙아시아를 기원지로 단정하기는 힘들었다. 그러나 아르잔-1호는 기원전 9세기로 상대적으로 시베리아 및 중앙아시아가 더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아르잔-1호의 발굴을 계기로 ‘스키토-시베리아(скифо-сибирский, Scytho-Siberian)문화권’이라는 용어도 고안했다.²⁶⁾

21) Королькова Е.Ф., *op. cit.*, 2003. pp.2~3(코롤코바, 위의 논문, 2003, 2~3쪽).

22) Piotrovsky B., Galanina L., Grach N., *Scythian Art. The Legacy of the Scythian World: mid-7th to 3rd century B.C.* Leningrad: Aurora Art Publishers., 1986, pp.17~21.

23) Руденко С.И., *Культура населения Центрального Алтая в скифское время*. М.-Л.: 1960, pp.201~202(루덴코 1960, 『스키탈 문화시기의 중부알타이 산맥의 주민문화』, 1960, 201~202쪽).

Артамонов М.И., *Ibid.*, 1973, pp.148~149(아르타모노프, 위의 책, 1973, 148~149쪽).

24) Руденко С.И., *Культура населения Горного Алтая в скифское время*. М.-Л.: 1953. pp.155~157(루덴코, 『스키탈 시대 알타이 산의 주민문화』, 1953, 155~157쪽).

Руденко С.И., *Ibid.*, 1960. pp.201~202(루덴코 1960, 위의 책, 1960, 201~202쪽).

St John Simpson and Dr Svetlana Pankova, *Scythians: warriors of ancient Siberia, [British Museum, The BP exhibition, Organized with the State Hermitage Museum, St Petersburg, Russia]* London: Thames & Hudson Ltd, 2017, pp.158~161.

25) 러시아어로는 ‘웅크린 몸의 고리형태 맹수(свернувшись в колцо хищника)’라고 한다. 서술적인 표현보다는 한국에서 고고학용어는 형태에 따라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고리형 맹수장식이라고 하겠다.

26) Грязнов М.П., *Аржан, Царский курган раннескифского времени.*, 1980, pp.50~55(그라즈노프, 『초기 스키탈 차르 무덤, 아르잔』 1980, 50~55쪽).

투바 지역을 수집지로 추정할 수 있는 유물 중에 하나로 반구형 단추(그림 4-2, 3)도 있다. 뒷면에 직물의 흔적과 옷에 매달기 위한 가로봉이 있는 것으로 상면에 말이 뒷다리를 움츠리고 앞 다리는 앞으로 하고 있는 문양이 주조로 제작된 것이다. 이 유물은 1978년에 투바의 발가진(Балгазын, Balgazyn) 마을 부근에서 발견된 단추와 매우 흡사해서 주목을 받았다.²⁷⁾

컬렉션 가운데는 아주 소형의 유물도 많이 발견되는데 알타이의 파지리크 유적 및 아크 알라하 3 유적에서 나온 뿔로 된 향아리(그림 9-11)를 모방한 듯한 포트르 I세의 유물(그림 9-8)도 있다.²⁸⁾

이 외에도 중앙아시아에서 입수된 유물도 있다. 시베리아 컬렉션에는 목걸이와 팔찌 등 장신구 등이 많은데 그 중에서 팔찌의 양 끝에 화려한 그리핀이 장식된 것(그림 5-1) 일찍부터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똑같은 그리핀 장식이 달린 팔찌(그림 5-2)가 현재 타지키스탄 국경내에 위치했던 것으로 알려진 아마다리아(Амударья, Amu Darya) 퇴장지에서 발견된 바 있다.²⁹⁾ 이 유적의 유물은 여러 경로로 입수되어서 현재는 영국박물관(British Museum)과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Victoria and Albert Museum)에 소장되어 있다. 아마다리아 퇴장지의 유물은 그레코-박타리아, 페르시아, 스키타이 동물 스타일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³⁰⁾ 유사한 팔찌가 페르세폴리스의 아파다나 궁전(그림 5-4)에서 조각되어 발견되어서 페르시아 계통으로 알려졌다. 포트르 I세의 팔찌 가운데서 1909년에 입수된 유물 중에서 팔찌 장식으로 추정되는 유물(그림 5-6, 7)은 시르다니아 강 하류의 두즈다크 주변에서 출토되어서 입수되었다. 기존의 포트르 I세의 수집품 가운데서 코일처럼 감긴 팔찌의 동물장식 부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되어서 코일처럼 감긴 팔찌는 시르다니아 강 하류 지역의 유적에서 입수되었을 수 있다.³¹⁾

그간 포트르 I세의 수집품이 어디로부터 입수되었는지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이르티시강의 합류점, 알타이 및 시베리아,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스텝지역)이 대상이 되었다.³²⁾ 알타이 및 시베리아가 대상지로 꼽히기는 했지만, 실제 유적에서 중량이 많이 나가는 황금유물이 출토되는 예가 많지 않았기에 중앙아시아 초원지역이 더 유력했다. 또 원형맹수장식을 제외하고는 그러나 비교적 최근에 발굴된 아르잔-2호에서는 대량의 금제 유물이 출토되었다. 그간 시베리아에는 흑해지역에 비해서 금제품의 중량을 많이 사용하

27) Грач Н.Л., Грач А.Д., “Золотая композиция скифского времени из Тувы”,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новые памятники письменности и искусства*, М. 1987, pp.134~137(그라치, 그리치, 「투바의 스키타이 시기의 황금유물」, 『중앙아시아: 기록과 예술의 새로운 발견』, 1987, 134~137쪽).

28) Руденко С.И., *Ibid.*, 1953, pp.155~157(루덴코, 『스키타이 시대 알타이 산의 주민문화』, 1953, 155~157쪽).
Полосьмак Н.В., Всадники Укока. - Новосибирск: Инфолио-пресс, 2001, pp.196~197(폴로스막, 『우코크의 말타는 전사들』, 2001, 196~197쪽).

29) Зеймаль Е.В., *Амударьинский клад: каталог выставки*, 1979, pp.10~12(제이말, 『아무다르리아 퇴장지: 전시도록』, 에르미타주 박물관, 1979, 10~12쪽).

30) Артамонов М.И., *op. cit.*, 1973, pp.148~149(아르타모노프, 위의 책, 1973, 148~149쪽).
Зеймаль Е.В., *Ibid.*, 1979, pp.10~12(제이말, 위의 책, 10~12쪽),
St John Simpson and Dr Svetlana Pankova. *Ibid.*, 2017, pp.310~319.

31) Завитухина М.П. *op. cit.*, 2001. pp.200~203(자비투히나, 위의 논문, 200~203쪽).

32) Piotrovsky B., Galanina L., Grach N., *Ibid.*, Leningrad: Aurora Art Publishers., 1986, pp.17~21.
Королькова Е.Ф., *op. cit.*, 2003, pp.2~3(코롤코바, 위의 논문, 2003, 2~3쪽).



〈그림 4〉 표트르 I 세의 황금유물과 비교유물 1(알렉세예프 2012, 아르타모노프 1973, 필자 촬영, 필자편집)



〈그림 5〉 표트르 1세의 황금유물과 비교유물 2

지 않는다는 생각과는 달리 1kg이 넘는 금목걸이가 출토되었다.³³⁾ 그간의 생각과는 다른 양상이다.

그중에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황금 컬렉션에 있는 목걸이와 거의 유사한 형식의 목걸이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르잔-2호의 유적에서는 흑해지역의 특징으로 알려진 금판을 부조한 방법 및 상감기법, 누금기법으로 만들어진 동물장식도 발견되어서 흑해지역 만의 제작기술로 알려진 유물이 이미 기원전 7세기 경에 아르잔-2호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표트르 I세의 수집품에서 볼 수 있는 제작방법이다.

그래서 표트르 I세의 황금유물 컬렉션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신구류인 목걸이와 귀걸이를 분류하고, 아르잔-2호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³⁴⁾ 그렇게 한다면 표트르 I세의 황금유물 컬렉션은 원행맹수장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원전 5세기 이후의 유물로 추정되었는데, 아르잔-2호와 비교한다면 유물의 연대도 새롭게 추정해 볼 수 있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또 이 컬렉션의 특징적인 유물인 동물투쟁문양(그림 4-4)에 표현된 동물 가운데 머리에 뿔이 달리고 그 끝에 새머리가 장식된 동물은 알타이의 유적에서 발견된 동물문양이다. 목제로 된 유물이 알타이 카탄타 유적(그림 4-8)에서 발견되면서 이미 비교된 바 있다.³⁵⁾ 그런데 필자는 동물의 뿔 끝에 달린 새 장식에 주목했다. 이 문양요소가 알타이 미라의 문신 및 아르잔-2호에서도 발견되어 함께 살펴볼 필요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표트르 I세의 수집품 가운데 많은 양을 차지하는 목걸이와 귀걸이, 동물장식을 분류한 후 형태와 제작방법을 함께 아르잔-2호 및 알타이 유물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Ⅲ. 아르잔-2호 출토품과 유물 형태비교

표트르 I세의 유물 중에서 큰 나무 아래서 남녀가 쉬고 있는 장면이 있는 장식판(그림 4-5)은 파지리크 2호의 유물(그림 4-9)과 비교된 바 있다.³⁶⁾ 여성이 삭발을 하고 머리에 특이한 모자³⁷⁾를 착용하고 있는데, 비슷한 유물이 파지리크 2호에서 출토되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서 표트르 I세의 시베리아 황금 컬렉션의 유물은 알타이 유물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투바지역은 원통형 단추를 통해서 그라치(Грач Н.Л., Грач А.Д., Grach N.L., Grach A.D.)가 이미 지적한 바 있다.³⁸⁾ 그런데 아르잔-2호의 발굴로 비교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이 생겼는데, 목

33) Чугунов К.В., Парципгер Г., Наглер А., Царский курган скифского времени Аржан-2 в Туве. Новосибирск: ИАЭТ СО РАН, 2017, p.39(추구노프, 파르친게르, 나게르, 『투바의 아르잔-2, 스키타이 차르 무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시베리아연구소, 2017, 39쪽).

34) 김재운, 위의 논문, 2021, 144쪽.

35) Артамонов М.И., *op. cit.*, 1973, pp.148~149(아르타모노프, 위의 책, 1973, 148~149쪽).

36) St John Simpson and Dr Svetlana Pankova, *op. cit.*, 2017, p.116.

37) 모자는 기본틀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가죽과 말총 등을 부자재로 사용한 것이다.

걸이와 귀걸이, 소형 술장식 등이다. 특히 목걸이와 귀걸이 등 장신구는 표트르 1세의 유물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여러 형식이 존재한다.

1. 목걸이

목걸이는 목에 한 번만 감도록 일환식과 여러 번 감을 수 있는 다환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일환식에는 완전히 돌아가는 닫힌 형식과 개폐가 가능한 열린 형식으로 구분된다. 다환식은 여러 번 감을 수 있는 감기 형식(그림 6-3~5)과 고리를 쌓아서 올리는 쌓기 형식(그림 6-6~9)이 있다. 그 중에서 여러 번 감을 수 있는 감기 목걸이 끝에는 동물의 머리 혹은 동물전신이 붙어서 2 형식으로 구분가능하다(표 1).

〈표 1〉 목걸이의 분류

고리의 종류	목걸이	동물장식			형식	그림번호
		없음(x)	머리(h)	전신(b)		
일환 : R	닫힌 형식 : c	○			Rcx	6-1
	열린 형식 : o		○		Roh	6-2
다환 : R2	감기형식 : w		○	○	R2wh R2wb	6-3~5
	쌓기형식 : p	○	○	○	R2pb R2ph R2px	6-6~9

이미 출토지가 알려진 유물 가운데 나선처럼 감을 수 있는 팔찌(그림 5-5)에는 전신형 동물과 변형된 동물 머리만 붙은 것이 있다. 팔찌 끝에 동물장식을 납땜해서 붙였고 20세기 초 시르다니야 강 하류 두즈다크 부근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목걸이 가운데 다환식으로 나선형 유물(그림 6-3, 5)은 두즈다라크 부근에서 출토된 팔찌와 목걸이의 형식 및 동물장식(그림 5-5~7)이 거의 비슷하다. 맹수가 자세를 낮추고 있는데, 몸통에 초생달 모양의 늑골 표현 등이 같은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것이다. 맹수머리만 붙은 감기형식 목걸이의 동물장식 특징도 앞서 설명한 유물과 같다.

따라서 다환식 중에서 감기형식으로 전신동물(그림 6-3, 4) 장식된 것은 시르다니야 강 부근에서 만들어졌을 수 있다. 다만 같은 형식의 목걸이 가운데 사자머리가 부착된 것(그림 6-5)은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

일환식 목걸이에는 완전히 돌아가는 닫힌 형식과 동물장식을 붙일 수 있는 열린형이 있다(그림 6-2). 그런데 닫힌 형식의 목걸이는 가슴쪽에는 직사각형으로 더 두툼도록 만들어진 것이 특징(그림 7-1)이다. 이 유물

38) Грач Н.Л., Грач А.Д., *Ibid.*, 1987, pp.134~137(그라치, 그리치, 위의 논문, 1987, 134~137쪽).



〈그림 6〉 표트르 1세의 황금 유물 중 목걸이(알렉세예프 2012, 코롤코바 2003, 필자 재편집)

은 시베리아 투바의 아르잔-2호 5호묘의 남성목걸이(그림 7-3)와 같은 형식이다. 아르잔-2호 출토품에는 동물로 장식되어 있다.

또 표트르 1세의 수집품에서 발견된 열린 형식 목걸이(그림 7-2)는 흑해지역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열린 형식의 목걸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앞 부분에 매듭이 달려 있어서 완전히 열려 있는 유물과는 차이가 있다. 대신 알타이 파지리크 문화의 아크 알라하-1 유적 남성(그림 7-4), 베르호 칼렌 II유적의 남성(그림 7-5)들이 착용하던 금박을 입힌 목제 목걸이와 같다. 열린 형식으로서 동물의 머리만 달려서 목걸이 착용 시 동일한 효과를 누리도록 한 것이다. 이미 표트르 1세의 유물 가운데서 소재는 다르지만 같은 주제가 만들어진 유물은 동물투쟁문양이 있는 장식판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림 7〉 표트르 1세의 황금유물 중 목걸이와 비교
 (알렉세예프 2012, 추구노프 외 2017, 폴로스막 1994, 필자 촬영, 필자 재편집)

2. 귀걸이

귀걸이는 귀에 거는 부분이 고리(I)로 된 것과 걸이 모양으로 인 것(II)은 귀걸이 착용방법에서 차이가 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구분가능하다. 전자에서 작은 고리가 붙은 것(R)과 작은 고리 없이(r) 바로 펜던트가 붙은 형식이 있다(표 2, 그림 8).

표트르 I세의 수집품 가운데 귀에 거는 부분은 고리이고 그 아래 작은 고리 없이 바로 원뿔모양 펜던트가 붙은 Ire형식(그림 8-12)과 구형 펜던트가 붙은 형식(Irf)의 유물(그림 8-10)로 구분된다. 이들은 아르잔-2호에서도 출토되었다. 고리 아래에 연결 고리 없이 원뿔모양이 붙은 형식(그림 8-16, 17)이다. 귀걸이는 고리 아래에 원뿔모양의 펜던트가 있고 그 아래에 2단으로 장식이 붙은 것으로 5호묘에서 출토되었다. 꼬인 고리 아래에 원뿔모양의 펜던트만 붙은 것(그림 9-1)이고, 매끈한 고리 아래에 구슬이 포도송이처럼 붙은 형식도 22호묘(그림 8-17)에서 발견 되었다. 뿐만 아고리가 연속되는 체인도 아르잔-2호의 5호묘(그림 9-2)에서는 발견되었는데, 표트르 I세의 귀걸이 장식부분과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래서 표트르 I세의 황금 유물 컬렉션에서 보이는 형식이 기원전 7세기 아르잔-2호에서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2〉 표트르 I세의 황금유물 중 귀걸이 분류

		펜던트	형식	그림번호
고리 : I	작은고리 : R	보요식 : a	IRa	8-7, 8
		지지대+체인 : b	IRb	8-1, 2
		체인 : c	IRc	8-3~5
		평면삼각형 : d	IRd	8-6
	작은고리없음 : r	원뿔형 지지대+ 펜던트 : e	Ire	8-12
		구형(단일 혹은 여러 개) : f	Irf	8-9~11
걸이 : II	작은고리없음 : r	원형 : O	IIrO	8-13~15

실제 존재한 그릇을 소형화 해서 장신구로 만든 기법도 아르잔-2호에서 확인된다. 5호묘의 주인공 남녀 사이에서 발견된 유물(그림 9-5)인데, 실제로 5호묘에서는 청동술이 무덤구덩이와 무덤방 사이에서 출토된 바 있다(그림 9-9, 10). 알라하-3유적에서 나온 뿔 그릇(그림 9-11)과 같은 형태의 모형(그림 9-8)은 뿔 그릇을 모델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미 지적되었다.³⁹⁾

그래서 시베리아에서는 사용한 그릇을 모델로 장신구를 만들었던 개념이 있었다. 이 외에도 표트르 I세의 반지(그림 9-6, 7) 가운데는 부조로 제작된 동물문양이 표현된 유물도 있는데 아르잔-2호의 5호묘 남성 철검을 연결하는 고리모양의 클립에는 동물(그림 9-4)이 부조로 표현된 것이 발견되어서 주목된다.

39) Полосьмак Н.В., *Ibid.*, 2001, pp.196~197(폴로스막, 위의 책, 2001, 196~197쪽).



〈그림 8〉 표트르 I세의 황금 유물 중 귀걸이 분류와 비교(루덴코 1962, 추구노프 외 2017, 필자 재편집)

3. 동물투쟁문양

(1) 표트르 I세 수집품의 동물투쟁문양 분류

표트르 I세의 시베리아 황금 컬렉션 가운데서 동물이 투쟁하고 있는 유물이 여러 점 있다. 이들 유물은 기본적으로 평면형태가 하단은 편평하고 상단은 원형과 장방형이 더해진 공통점이 있다.

2마리 이상이 대립 구도를 이루는 형식과 1마리만 표현된 비대립구도로 구분된다. 대립구도에는 1:1(그림 10-2) 혹은 1:M(여러 마리)(그림 10-1)으로 싸우는 장면이 있다.

포식자인 호랑이와 피식자가 출현하는 장면은 1:1인 구도이다. 그런데 〈그림 12-1〉은 호랑이와 거의 비슷한 크기의 동물이 표현되어 있다. 이 동물은 다른 투쟁문양의 동물과 달리 앞발을 들고 있어서 단순히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는 아니다. 또 다른 한 점(그림 12-10)은 맹수의 입속에서 다른 동물이 나오는 모습인데, 실체라기 보다는 신화적 표현에 가깝다. 자바이칼 지역에서 수습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마리의 포식자가 우제류를 뜯어 먹는 장면도 1: M(그림 10-1)의 구도로 존재한다.

이 외에도 평면형태는 같으나 대립구도를 이루지 못하고 단독으로 포식자가 부조된 유물(그림 8-3)도 존재한다.

스키타이 시대가 아닌 사르마트 문화의 것으로 생각되는 동물투쟁문양도 있다. 네 모의 프레임 속에 2마리 이상의 동물이 표현된 유물도 있는데, 주로 몸통이 긴 동물이다.

(2) 알타이 동물투쟁문양 및 변형동물

동물투쟁문양은 스키토 시베리아 문화권의 동부지역인 알타이와 서부지역인 흑해지역에서 모두 발견된다.

파지리크 말 안장에서 보이는 동물투쟁문양은 흑해지역의 켈레르메스 유적에서 출토된 금제 잔(그림 11-5)에서 가장 먼저 확인된다. 이 유물은 아시리아에서 수입된 것이다. 아케메네스 왕조에서도 맹수가 뒤에서 공격하는 장면이 알려져 있다. 그래서 루덴코는 파지리크 유적의 안장에서 발견된 동물투쟁문양을 고대 이란지역 계통이라고 생각했다.⁴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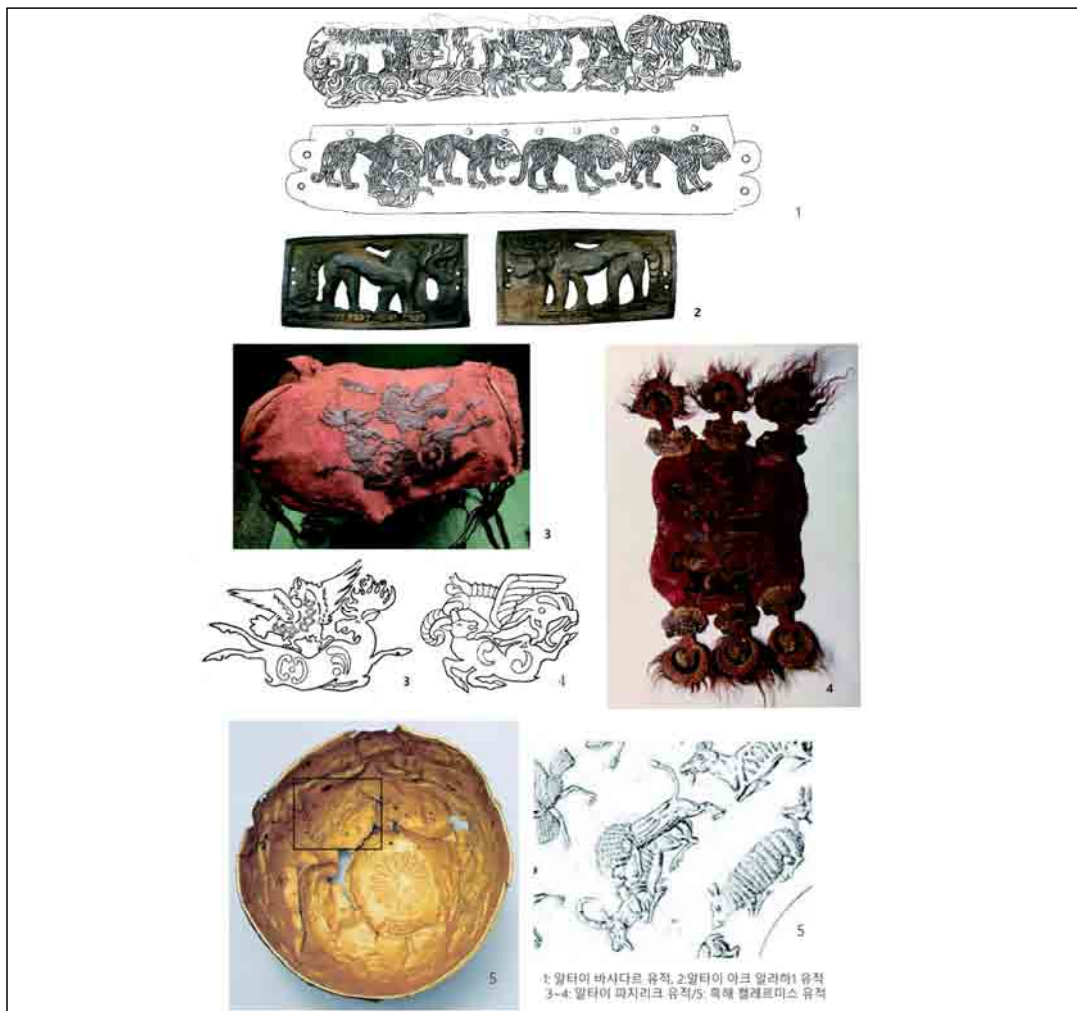


〈그림 9〉 표트르 I 세의 유물과 비교 유물

40) Руденко С.И., *Ibid.*, 1962, pp.37~40(루덴코, 위의 책, 1962, 37~40쪽).



〈그림 10〉 표트르 I세의 황금유물 중 동물투쟁문양 분류(미나산 2014 재편집)



〈그림 11〉 스키타 시베리아 문화권의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동물투쟁문양
(루덴코 1960, 폴로스막 2001, 갈라리나 2006, 필자 재편집)

그러나 페레보드치코바⁴¹⁾는 알타이의 바샤다르 유적 통나무관(그림 11-1)에 새겨진 동물문양에서 투쟁문양이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호랑이가 열을 이루고 있고, 그 발 아래에 피식자가 넘어진 채 표현되었다. 알타이 동물투쟁문양은 파지리크 유적의 말안장에 장식된 동물투쟁문양(그림 11-3, 4)과 카탄타 유적에서 출토된 목제로 제작된 장식판(그림 4-8)이 있는데, 두 유물은 동물의 표현방법이 다르다.

안장장식(그림 11-2, 3)에는 포식자가 피식자를 뒤에서 공격하는 사냥장면으로 루덴코의 지적대로 페르시아 계통의 문양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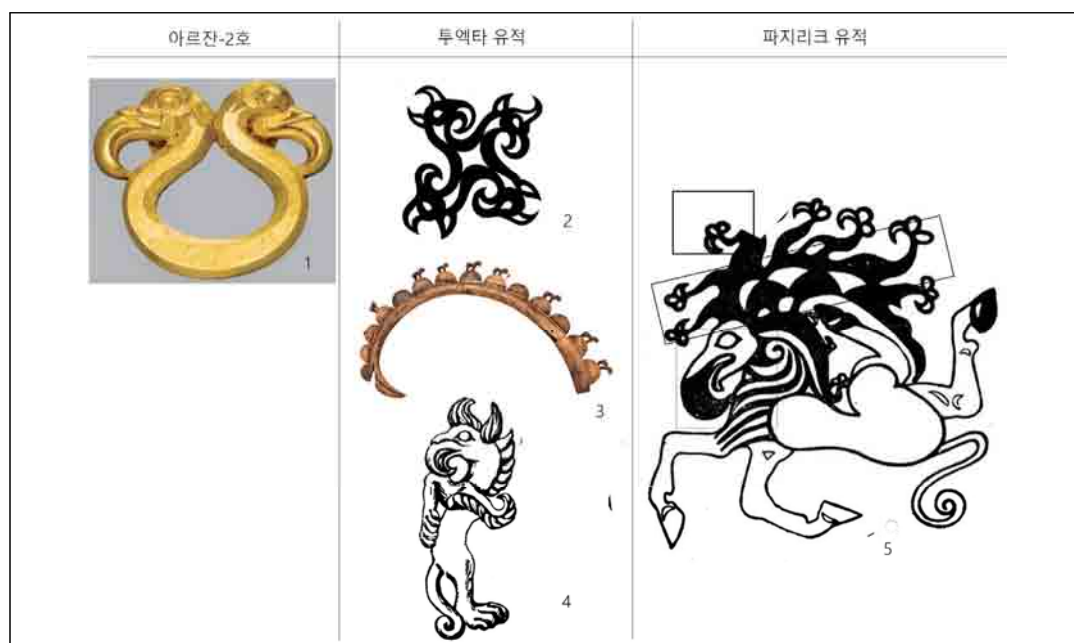
〈그림 12〉 표트르 I 세의 황금유물과 알타이의 문신동물문양비교
(미나산 2014, 루덴코 1953, 폴로스막 2001, 필자 재편집)

반면에, 카탄타(Катанда, Katanda) 유적의 목판(그림 4-8)에는 맹수와 사슴이 서로를 공격하는 장면이다. 이와 가장 유사한 것이 표트르 I세의 동물투쟁문양이다. 카탄타 유적 출토의 목제판은 평면형태가 원형과 장방형이 결합된 것으로 사슴의 뿔은 새머리로 장식되어 있다. 표트르 I세의 동물투쟁문양에서 발견되는 요소

41) Переводчикова Е.В., *Ibid.*, 1994, pp.116~128(페레보드치코바, 위의 책, 1994, 116~128쪽).

이다. 카탄타 유적 외에도 아크 알라하-1 유적 1호의 남성 허리띠 장식은 목제판(그림 11-2)을 이용한 것인데, 가장 앞쪽 장식판에는 동물투쟁문양에서 사용되는 두 마리 동물이 각각 조각되었다. 호랑이는 큰 변형이 없지만, 사슴처럼 보이는 동물은 긴꼬리와 발톱은 호랑이와 흡사하고 뿔의 끝에는 새 머리가 장식되었다. 서로를 마주 보도록 조각했다는 점에서 착용했을 때 대립구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사슴의 뿔이 새머리로 장식된 표현방법은 알타이 파지리크 유적의 2호(남성과 여성)(그림 12-5~9), 아크 알라하-3 유적(여성)(그림 12-2, 3), 베르호 칼진 II유적(남성)(그림 12-4)의 미라 문신에서도 발견된다.



〈그림 13〉 문신동물문양의 개별요소(루덴코 1953, 루덴코 1962, 추구노프 외 2017, 필자 재편집)

문신은 여러 변형동물이 그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뿔금류의 부리, 사슴 뿔, 말의 몸통이 결합된 변형동물(그림 13-5)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미라에게서 발견되는 공통 그림이다. 이들은 말이 사슴처럼 보이도록 변형시켰다는 점에서 말형 그리핀으로 볼 수 있다. 말형 그리핀의 뿔 장식 끝에는 새머리가 달려 있다(그림 13-5).

그런데 파지리크 유적 보다 이른 기원전 6세기 투엑타 유적에서는 말형 그리핀의 요소가 개별로 확인된다. 새 머리(그림 13-2), 새 머리가 장식된 산양뿔 장식(그림 13-3), 독수리 부리가 달린 호랑이 변형동물(그림 13-4) 등이다. 특히 새 머리 장식은 기원전 7세기 아르잔-2호에서 금제로 제작된 유물(그림 13-1)이 발견되었다.

새 머리가 장식된 사슴뿔 장식은 투엑타 유적 뿐만 아니라 파지리크 유적 2호의 남성모자에서도 볼 수 있다.

즉 새 머리 장식이 달린 사슴뿔 문양(그림 13-4)은 기원전 6세기 알타이 특징적인 문양으로 볼 수 있고, 이 문양이 사용된 표트르 I세의 동물투쟁문양(그림 13-1~3)도 마찬가지이다.

IV. 아르잔-2호 출토품과 제작방법 비교

유물의 생김새 뿐만 아니라 이를 제작한 제작방법인 상감방법과 누금방법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 부조방법

표트르 I세의 황금유물 컬렉션의 평면유물은 3가지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첫 번째는 밀랍틀을 이용해서 토제 거푸집에서 금을 주조하는 방법인데, 대표적으로 원형 맹수장식을 들 수 있다. 먼저 맹수장식의 틀을



〈그림 14〉 원형맹수장식의 거푸집을 만들기 위한 밀랍 모형(미나산 2014)

밀랍으로 만들었는데(그림 14), 맹수의 얼굴 근육, 엉덩이 근육 등을 볼록하게 표현했다. 이후에 원형으로 밀랍틀을 구부린 후, 뒷면을 오목하게 파냈다. 밀랍틀을 이용해서 점토로 거푸집을 만들고 그곳에 용융액을 부어서 주조하는 방법으로 금제품을 만들었다. 보석류를 상감을 한 감입부는 돌을 끼운 후 납 땀 해서 마무리했다. 두 번째 방법은 양면 밀랍틀을 이용한 것인데, 뒷면에 직물을 깔았던 흔적이 남아 있다(그림 15-3, 4). 세 번째 방법은 나무로 된 틀을 이용해서 금판을 눌러 찍은 것이다(그림 15-5, 6). 이 경우에는 뒷면에 부식포의 흔적이 남지 않는다.⁴²⁾

표트르 I세의 유물을 주조하는 가운데 원형 맹수장식을 만든 주조방법과 나무로 된 틀을 이용해서 금판을 눌러 찍는 방법은 아르잔-2호에서 관찰된다.

42) Минасян, Р.С., *Металлообработка в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е*. СПб: Изд-во Гос. Эрмитажа, СПб: Изд-во Гос. Эрмитажа, 2014, pp.404~409(미나산, 『고대부터 중세까지 금속제작방법』, 에르미타주 박물관, 2014, 404~409쪽).

아르잔-2호의 5호묘에서 발견된 멧돼지 장식(그림 16-5)과 S자형 장식(그림 16-4)은 뒷면이 오목하게 홈이 있고 앞면은 볼록하게 근육이 표현되어 있다. 밀랍으로 틀을 만들고 점토제 거꾸집을 이용해서 주조한 것으로⁴³⁾ 원형맹수장식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나무틀을 이용해서 금판으로 찍어내는 방법은 고리트의 지지대(그림 16-1, 2)와 목제 잔의 손잡이(그림 16-3)에서 볼 수 있다. 고리트의 지지대는 비늘문양으로 조각된 나무판 위에 금판을 입힌 것이다. 금판에는 나무틀에 있는 비늘이 그대로 찍혀 있다. 목제 잔의 손잡이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스키토 - 시베리아 문화권의 동물양식 중에서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동물 몸통의 표현방법이다. 같은 자세의 사슴문양은 서부지역인 흑해지역에서는 동물의 근육이 상당히 잘 표현되어 있다. 반면에 동부지역에서 발견된 유물은 대체로 근육표현이 발달되지 않고 음각선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래서 동물몸통의 근육표현이 확실한 유물은 대체로 스키토 - 시베리아 문화권의 서부지역 특징으로 생각되었다.⁴⁴⁾

그러나 시베리아 아르잔-2호에서 근육표현이 확실한 동물장식 등이 출토되면서 이러한 생각을 검토해 볼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

2. 누금기법과 상감기법

표트르 1세의 유물 가운데 소형유물에는 누금기법으로 장식된 유물이 많이 있는데, 귀걸이, 소형 그릇 등에서 볼 수 있다(그림 17-11~16).

아르잔-2호의 Ire형식 귀걸이에는 황금 알갱이를 붙이고 그 사이에는 에나멜을 끼울 수 있도록 하는 감입부가 금제 와이어로 만들어져있다(그림 9-1). 상감기법은 귀걸이, 모자장식 뿐만 아니라 철제 검(그림 17-1)과 투부(그림 17-2), 화살촉(그림 17-3, 4)에도 사용되었다.

스키토 - 시베리아 문화권에서 누금기법과 상감기법은 흑해지역에서 먼저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켈레르메스 유적의 디아렘(Diadem)(그림 18)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그리스 수입품인 이 디아렘의 황금알갱이는 크기가 일정치 못하고 상대적으로 조잡하다. 반면에 아르잔-2호 출토품은 크기가 일정하고 더 조밀하게 부착되었다. 그래서 스키토 - 시베리아 문화권 내에서 누금기법은 아르잔-2호에서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리스로부터 그 기술을 입수했다기 보다는 시베리아에서도 이미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아르잔-2호에서 사용된 상감기법은 감입부를 만들어 에나멜 혹은 보석류를 장식하는 기법도 있지만, 철제에 금을 끼워 넣은 방법도 검의 동물문양을 표현한 방법으로 발견되었다. 철제 검(그림 17-1), 전투용 도끼(그림 17-2), 화살촉(그림 17-3, 4) 등에서 확인되며 의례용 무기를 장식했던 방법이다. 철제품에 금 애플리케이션(금 조각)을 감입하는 방법이다. 철제 검의 호랑이 장식은 크기가 5.3cm가량인데, 끼워 넣은 금의 두께는 0.27cm 정도 된다. 켈레르메스 유적 디아렘(그림 18)의 상감기법 보다는 훨씬 세밀한 기법이다.

43) Чугунов К.В., Паршингер Г., Наглер А., *Ibid.*, 2017, pp.193~194(추구노프, 파르친게르, 나게르, 위의 책, 2017, 193~194쪽).

44) Переводчикова Е.В., *Ibid.*, 1994, pp.58~62(페레보드치코바, 위의 책, 1994, 58~62쪽).



〈그림 15〉 시베리아의 동물장식 제작방법(미나산 2014, 필자 재편집)



〈그림 16〉 아르잔-2호 출토 주조품(추구노프 외 2017, 필자 재편집)

그래서 이미 스키타-시베리아 문화권 중에 기원전 7세기 남부 시베리아 아르잔-2호 유적에서는, 표트르 1세의 수집품에서 발견되는 상감기법과 누금기법이 있었다.



〈그림 17〉 아르잔-2호와 표트르 1세의 황금유물 중 누금기법과 상감기법(추구노프 외 2017, 루덴코 1962, 필자 재편집)

V. 표트르 1세의 시베리아 컬렉션과 투바 및 알타이

표트르 1세의 황금유물 컬렉션은 이르티시 강 상류와 오비강의 합류점, 크라스노야르스크 부근, 시르다니아 강 하류 지역에서 수집된 것으로 연구되었다. 또 전신의 원형 맹수장식과 단추⁴⁵⁾ 등은 시베리아의 넓은 지역 가운데, 투바 지역도 수집처 중 하나인 곳으로 앞선 연구에서 상정되었다. 나무아래 남녀가 휴식을 취하는 장면, 소형의 항아리 장식, 동물투쟁문양은 알타이의 유적에서 유사한 유물들이 발견되어서 알타이 무덤에서 수집되었을 가능성도 있었다.⁴⁶⁾

그러나 알타이 카탄타 유적의 동물투쟁문 장식은 목제이기 때문에 금제품에 대한 의구점도 남아 있었다. 하지만 아르잔-2호에서는 대량의 금제품이 나와서 표트르 1세의 수집품과 비교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유적에서 출토된 남성의 폐쇄형 목걸이와 고리 아래에 원뿔장식이 달린 귀걸이, 소형 술이 달린 장식 등은 유사한 유물이 표트르 1세의 시베리아 컬렉션에서 발견되었다. 뿐만 아니라, 귀걸이를 장식한 세밀한 누금기법과 상감기법, 나무판으로 찍는 부조 방법도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표트르 1세의 수집품 유물의 형태와 제작기법 등으로 판단컨대, 17세기 수집 당시에 투바에서도 유물이 비학문적인 방법으로 꺼내어진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출처를 알 수 없어서 연대가 불확실했던 표트르 1세의 유물 가운데 아르잔-2호와 비교가능한 유물은 기원전 7세기경에 존재했을 수 있다. 전신형 원형맹수장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원전 5세기이후로 생각되었던 것과는 다르다.

특히 금제작 기술을 연구한 미냐산(Минасян, Р.С., Minasyan, R.S.)은 투바의 발가진에서 발견된 단추



〈그림 18〉 켈레르메스 유적 출토 디아DEM
(알렉세예프 2012, 필자 재편집)

45) Грач Н.Л., Грач А.Д., *op. cit.*, 1987, pp.134~137(그라치, 그리치, 위의 논문, 1987, 134~137쪽).

46) Руденко С.И., *Ibid.*, 1953, p.52(루덴코, 『스키타이 시대 알타이 산의 주민문화』, 1953, 52쪽).

Артамонов М.И., *op. cit.*, 1973, pp.148~149(아르타모노프, 위의 책, 1973, 148~149쪽).

Переводчикова Е.В., *op. cit.*, 1994, pp.58~62(페레보드치코바, 위의 책, 1994, 58~62쪽).

Полосьмак Н.В., *Ibid.*, 2001, pp.196~197(폴로스막, 위의 책, 2001, 196~197쪽).

St John Simpson and Dr Svetlana Pankova, *op. cit.*, 2017, pp.158~161.

(그림 4-2, 3)의 뒷면에 남아 있는 직조흔적은 틀에서 꺼내기 위해서 사용한 흔적으로 동물투쟁문양에 남아 있는 직조흔적도 같은 경위로 만들어졌다고 보았다.⁴⁷⁾

선행연구에서는 목제로 된 카탄타 동물투쟁문양 장식판⁴⁸⁾과 바샤다르의 통나무관⁴⁹⁾ 외에는 동물투쟁문양의 요소를 알타이에서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필자는 동물투쟁문양 중에서 사슴뿔의 끝에 달린 목이 C자 혹은 S자로 굽어진 새머리 장식은 알타이 파지리크 유적, 아크 알라하-3 유적, 베르흐 칼진(Верх Кальджин, Verh Kaljin) II유적 미라의 문신에게도 같은 문양이 발견된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와 같은 새 머리는 아르잔-2호에서 최초로 금으로 제작되어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미 연구된 여러 지역과 더불어 시베리아 투바 및 알타이도 표트르 I세의 수집품의 주요 출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Ⅵ. 맺음말

표트르 I세의 시베리아 황금유물은 비학문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었으나, 18세기부터 러시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고고학연구를 시작하게 된 연원이 되었다. 시베리아 총독이었던 가가린은 시베리아 각 지역에서 수집된 유물을 3년에 걸쳐서 표트르 I세에게 선물로 보내면서 이 컬렉션은 시작되었다.

하지만 고고학 자료의 특성상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점은 학술자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러시아에서는 오랫동안 유라시아 각 지역의 발굴 자료와 비교하면서 컬렉션의 수집지를 추정했다. 그래서 좀 더 자료가 많아지면 시베리아 컬렉션의 출처는 더 분명해 질 수 밖에 없다. 2000~2004년에 발굴된 시베리아 투바의 아르잔-2호 유적은 비교 가능한 좋은 자료가 되었다. 남성의 목걸이, 여성의 귀걸이, 소형 솔 장식 등은 표트르 I세의 수집품과 비교가능했다. 또 누금기법과 상감기법, 부조방법 등 표트르 I세의 황금 유물을 제작할 때 사용했던 기법도 아르잔-2호의 금제품에서도 확인되었다.

표트르 I세의 유물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동물투쟁문양 중에서 사슴뿔 끝에 달린 새 머리로 알타이 및 투바의 아르잔-2호에서 확인되는 요소이다.

따라서 표트르 I세의 시베리아 황금유물 컬렉션의 출처는 기존에 연구된 중앙아시아 뿐만 아니라 투바 및 알타이도 유력한 곳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47) Минасян, Р.С., *Ibid.* 2014, pp.404~409(미냐산. 위의 책, 2014, 404~409쪽).

48) Артамонов М.И., *op. cit.*, 1973, pp.148~149(아르타모노프, 위의 책, 1973, 148~149쪽).

49) Переводчикова Е.В., *op. cit.*, 1994, pp.58~62(페레보드치코바, 위의 책, 1994, 58~62쪽).

〈참고문헌〉

- 김재윤, 「러시아의 발굴 - 연해주 철기시대 안콥스키 문화의 바라바시 3유적을 중심으로 -」, 『야외고고학』, 81, 2018.
- 김재윤, 「스키타이 차르 무덤, 아르잔-2호」, 『고고광장』, 28, 2021.
- N.V.폴로스막 2016, 『알타이 초원의 기마인』, 주류성.
- Авдусин Д.А., *Полевая археология СССР*, Москва, 1972(압두신, 『소비에트의 야외고고학』, 1972).
- Алексеев А.Ю., *Золото скифских царей в собрании Эрмитажа*. СПб: Изд-во Гос. Эрмитажа, 2012 (알렉세예프, 『에르미타주박물관 소장 스키타이 차르의 황금유물 컬렉션』, 2012).
- Артамонов М.И., *Сокровища саков*. М.: 1973(아르타모노프, 『사카족의 보물』, 1973).
- Галанина Л.К., *Скифские древности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в собрании Эрмитажа. Келермесские курганы*. СПб: Изд-во Гос. Эрмитажа, 2006(콜렉션 Эр미타жа)(갈라니나, 『에르미타주 소장, 카프카스 북쪽의 켈레르메스 고분. 스키타이 문화유물』, 2006).
- Грач Н.Л., Грач А.Д., “Золотая композиция скифского времени из Тувы”,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новые памятники письменности и искусства*. М. 1987(그라치, 그리치, 「투바의 스키타이 시기의 황금 유물」, 『중앙아시아: 기록과 예술의 새로운 발견』, 1987).
- Грязнов М.П., *Аржан. Царский курган раннескифского времени.*, 1980(그라즈노프, 『초기 스키타이 차르 무덤, 아르잔』 1980).
- Евпихова Л.А.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памятники енисейских кыргызов-хакасов*. Абакан, 1948(예프튜호바, 『예니세이 키르기즈 - 하사스 지역의 고고학 유적』, 1948).
- Королькова Е.Ф., “Сибирская коллекция Петра I - первое российское археологическое собрание”, *Основателю Петербурга: Каталог выставки [в Эрмитаже]*. СПб: «Славия». 2003(코롤코바, 「표트르 1세의 시베리아 컬렉션 - 최초의 러시아 고고학 수집품」, 『상트 페테르부르크 파운데이션』, 슬라비아, 2003).
- Миллер Г.Ф., *История Сибири. Том I*, М.-Л.: 1937(밀러, 『시베리아 역사1권』, 1937).
- Минасян, Р.С., *Металлообработка в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е*. СПб: Изд-во Гос. Эрмитажа., СПб: Изд-во Гос. Эрмитажа, 2014(미냐산. 『고대부터 중세까지 금속제작방법』, 에르미타주 박물관, 2014).
- Завитухина М.П., “Собрание М.П. Гагарина 1716 г. в Сибирской коллекции Петра I.”, *АСГЭ*. Вып. 18. Л., 1977(자비투히나, 「표트르 1세의 수집품 가운데 1716년 가가리노의 수집품」, 『에르미타주 국가박물관 고고학논문집』 18, 1977).
- Завитухина М.П., “Коллекция Г.Ф. Миллера из Сибири - одно из древнейших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собраний России.”, *СГЭ*. Вып. XLIII. Л.: 1978. С. 37-40(자비투히나, 「러시아 고고학자료가운

- 데 가장 오래된 밀러의 시베리아 수집품», 『에르미타주 국가박물관의 뉴스』, XIII, 1978).
- Завитухина М.П.**, *Древнее искусство на Енисее. Скифское время.* / Публикация одной коллекции. Л.: Искусство, Лен. отд., 1983(자비투히나, 『예니세이강의 고대 예술』, 예술, 1983).
- Завитухина М.П.**, “Золотые браслеты из местности Дуздак (Туздак) в Средней Азии и Сибирская коллекция Петра I.”, *Евразия сквозь века*. СПб: 2001(자비투히나, 『표트르 I세의 시베리아 컬렉션과 중앙아시아 두즈라에서 발견된 황금팔찌』, 『시대를 초월한 유라시아』).
- Зеймаль Е.В.**, *Амударьинский клад: каталог выставки*, 1979(제이말, 『아무다르리아 퇴장지: 전시도록』, 1979, 에르미타주 박물관).
- Переводчикова Е.В.**, *Язык звериных образов. Очерки искусства евразийских степей скифской эпохи*, 1994(페레보드치코바, 『언어로서의 동물문양장식』, 1994).
- Полосьмак Н.В.**, *«Стерегищие золото грифы» (ак-алахинские курганы)*. Новосибирск: 1994(폴로스막, 『황금을 지키는 그리핀(아크 알라하 무덤)』, 1994).
- Полосьмак Н.В.**, *Всадники Укока.* - Новосибирск: Инфолио-пресс, 2001(폴로스막, 『우코크의 말타는 전사들』, 2001). 이 책은 2016년에 한국어로 출판되었다.
- Руденко С.И.**, *Культура населения Горного Алтая в скифское время*. М.-Л.: 1953(루덴코, 『스키타이 시대 알타이 산의 주민문화』, 1953).
- Руденко С.И.**, *Культура населения Центрального Алтая в скифское время*. М.-Л.: 1960, 360(루덴코 1960, 『스키타이 문화시기의 중부알타이 산맥의 주민문화』, 1960).
- Руденко С.И.**, *Сибирская коллекция Петра I*. САИ ДЗ-9. М.-Л.: 1962(루덴코, 『표트르 I세의 시베리아 컬렉션』, 1962).
- Чугунов К.В., Парцингер Г., Наглер А.**, *Царский курган скифского времени Аржан-2 в Туве*. Новосибирск: ИАЭТ СО РАН. 2017(추구노프, 파르친게르, 나게르, 『투바의 아르잔-2, 스키타이 차르 무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시베리아연구소, 2017).
- Сергеев Н.Н., Матренин С.С.**, *Погребальный обряд кочевников Алтая во II в. до н.э. - XI в. н.э.*, 2016(세레진, 마트레닌, 『기원전 2~기원후 11세기 알타이 유목민의 무덤』, 2016).
- Элерг А. Х.**, “По следам академического отряда Великой Северной экспедиции”, *НАУКА ИЗ ПЕРВЫХ РУК*, том 18, №6, 2008(에레르트, 『위대한 북방 탐험대의 학문적 분리를 위한 발자취』, 『퍼스트 핸드』, 18호, 2008).
- Dalton O. M. *The Treasure of the Oxus with Other Objects from Ancient Persia and India Bequeathed to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by Sir Augustus Wollaston Franks*. London, 1905.
- St John Simpson and Dr Svetlana Pankova. *Scythians: warriors of ancient Siberia*. [British Museum. The BP exhibition. Organized with the State Hermitage Museum, St Petersburg,

Russia] London: Thames & Hudson Ltd. 2017.

Piotrovsky B., Galanina L., Grach N., *Scythian Art. The Legacy of the Scythian World: mid-7th to 3rd century B.C.* Leningrad: Aurora Art Publishers., 1986.

* 이 논문은 2022년 3월 10일에 투고되어,
2022년 3월 21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2년 4월 5일까지 심사하고,
2022년 4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Abstract |

Review of the Collection Site of ‘Peter I’s Siberian Collection’

Kim, Jaeyoun*

Peter I’s Siberian collection began to form in the 18th century when the governor Gagarin sent the gold artifacts he had collected in Siberia to the emperor. With this as a starting point, Peter I issued a decree that became the basis of the excavation system, which became an important starting point for Russian archaeological research, and in 1857 he founded the Imperial Archaeological Commission. After that, it was collected through various routes, and in the 19th century, the archaeologist Spitzin A.A. named it the “Siberian Collection of Peter I”.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the archaeological data, the source is unclear, which makes it difficult to determine the locality and age of the relics. Comparing with later excavated data, it was assumed that the Ob River and Irtysh River, the western Altai region and the Kazakhstan Step region were unclear. In Altai, which is estimated to be an important excavation site, there are few artifacts that use a lot of gold, and the Kazakhstan Step region is treated with more weight.

However, the excavation data of new ruins can fill the gaps in the existing ones, and it is necessary to compare them as many golden artifacts were excavated from Arzhan-2 in the 7th century BC in Tuva, Siberia.

Men’s necklaces, women’s earrings, and accessories with small cauldrons from Arzhan-2 have many similarities to the products of Peter I’s Siberian collection known so far. Among the collections, the major production techniques such as relief technique, inlay technique, and lamination technique are also shown in Arzhan-2. Also, among the animal struggle patterns, the bird headdress attached to the tip of an animal’s horn is seen in the 5th century BC Altai Pazirik culture mummy tattoo, and is also an element observed in Arzhan-2.

So, it is possible that some of Peter I’s gold collection were collected in Siberia Tuva and Altai. The center of the collection, curled up in a predator’s ring, is known to be from the 7th century BC, but most of the artifacts except for this are thought to be from the 5th century BC. However, relics comparable to Arzan-2 can be estimated from the 7th century BC in terms of shape and

* Pusan National University

manufacturing technique.

[Keywords] Peter I's Siberian collection, Arzhan-2, Siberia, Tuva, 7th century BC, shape and manufacturing technique

